

고수온 재난 예·경보 단계 ‘심각’에서 ‘경계’로 하향 조정한다

- 수온 하락 추세에 따라 하향 조정, 고수온 주의보 해역 30개에서 13개로 감소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9월 17일(목) 16시부로 고수온 재난 예·경보* 단계를 ‘심각’에서 ‘경계’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. 이는 9월부터 수온이 점차 낮아져서 서·동해안, 제주 등 일부 해역의 고수온 특보**가 해제되어, 고수온 주의보 해역이 30개에서 경남 사천만과 전남 여자만 등 13개 해역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.

* 관심(5~9월) → 주의(예비특보 발표) → 경계(주의보 4개 이상) → 심각(주의보 15개 이상)

** 예비특보(수온 25℃ 도달) → 주의보(28℃ 도달) → 경보(28℃ 3일 이상 지속)

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재난 예·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비상대책본부(장관)를 비상대책반(수산정책실장)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. 다만, 아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일부 해역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.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고수온 피해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,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.”라며, “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, 재난 지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하여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 및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환 (051-773-5392)
			사무관	김범규 (051-773-5626)

고수온 위기경보 해역도

